

# 美텍사스 총기난사 희생자 한인교포 가족 3명 포함

### 30대 부부와 3세 아이 참변 충격범 포함 모두 8명 사망 극우주의자 혐오범죄 가능성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 교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가운데 한인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주류스텐총영사관 델러스출장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께 델러스 교외 '엘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모씨와 강모씨, 이들의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또 부부의 다른 자녀인 5세 아이는 크게 다쳐 당일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일가족은 모두 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델러스에 거주하는 이들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도시 엘런은 델러스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소도시다.

현지 한인 매체는 이 부부가 모두 전문직 종사자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이 아울렛 앞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총기를 난사해 모두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다.

총격범 역시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앨런의 코트우드 크릭 교회 밖에서 주민들이 총기 규제 찬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날 앨런의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다. 앞서 이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현지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혔으며, 현재까지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가르시아가 사살된 뒤 현장에서 AR-15 스타일의 소총과 권총 등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르시아가 극우주의와 인종주의에 경도된 상태였다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AP통신은 수사 당국이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백

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의 견해에 관심을 표명한 게시물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방송은 수사관들이 그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인종주의와 관련된 수백 개의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또 사망한 범인이 옷에 'RWDS'라고 적힌 휘장을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문구는 'Right Wing Death Squad'의 약칭으로, 최근 극우 극단주의자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문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범인이 극단적인 인종주의자로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증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신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인종 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앨런이 속해 있는 델러스-포트워스 대도시 권역은 근래 미국 주요 대도시 중 아시아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AP는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앨런의 전체 인구 10만5천명 중 아시아계가 약 19%, 흑인이 10%, 히스패닉이 11%다.

AP는 2019년 텍사스 엘패소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 난사해 23명을 살상한 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도 앨런에서 살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히스패닉 침공'을 경고하는 인종차별적인 화면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엘패소로 차를 몰고 가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 내전·난민 문제 해결 공동 노력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가 12년 만에 아랍연맹(AL)에 복귀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아랍뉴스 등 아랍권 매체에 따르면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이남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남 시리아의 연맹 복귀에 관한 표결에서 22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다.

아랍연맹의 의사결정은 통상 합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사안에 따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몇몇 회원국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반군 측을 지지한 카타르는 알아사드 정권의 연맹 복귀에 반대해 왔다.

이라크 국영 INA 통신은 외무부를 인용해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시리아의 회원 자격 회복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야흐메드 알사흐라프 외무부 대변인은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서 외교 장관들이 시리아의 복귀에 동의했다"며 "이라크는 아랍의 통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알사흐라프 대변인은 여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시리아-수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사드 정부의 연맹 복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랍연맹 회원국들은 시리아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전·난민·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또 회원국들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사우디·레바논·요르단·이라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왕위 오른 찰스 3세 왕관의 무게 전달까 왕실 불신·영연방 분열 극복이 최대 과제

### 젊은층 군주제 폐지 여론 늘어 제국주의 식민지배 사과 목소리도

6일(현지시간) 대관식으로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새 군주가 된 찰스 3세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다.

70년 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달리 다른 세상에서 무게 2.23kg의 왕관을 쓴 그는 높아지는 군주제 폐지 여론과 떨어지는 지지율 속에 왕실의 존재 의의를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과오를 사죄하는 등 왕실을 현대화하고 브렉시트 이후 분열된 영국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들 해리 왕자와의 갈등 등 가족 문제도 숙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관식이 군주제를 현대적으로 다듬어 그 지속성을 제시하고, 왕실을 둘러싼 서사를 재구성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찰스 3세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주변 인물로 살아온 그에게 쉽지 않은 주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찰스 3세는 수십년간 국제적 유명인사였지만 대

부분은 그가 아니라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나 아내였던 다이애나비, 혹은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등 아들들이 이야기의 중심이 됐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왕과 비교하면 찰스 3세의 입지는 아직 초라하기만 하다. 여왕은 폭넓은 인기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영국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영국인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

'인기 없는 주인공'인 찰스 3세에게 군주제에 대한 영국인들의 지지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큰 고민거리다.

CNN방송이 여론조사 기업 사반타와 18세 이상 영국 성인 2천93명을 설문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인 36%가 왕실 가족에 대한 의견이 10년 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41%는 '변함이 없다'를 택했다.

왕실이 국민들에게 '지도력과 모범의 좋은 원천'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영국 성인의 4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41%, '불확실하다'는 16%였다.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은 55세 이상에서는 36%였으나 2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55%로 절반을 넘어 세대 간 견해차도 극명히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서 시민들이 대관식 콘서트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찰스 3세 대관식을 기념해 열린 이날 콘서트는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개최됐다. /연합뉴스

국제적으로는 과거 제국주의 식민 지배 시절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자메이카,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등 영연방 12개 국가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대관식 전날인 4일 찰스 3세에게 서한을 보내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왕실 재산을 이용한 배상을 촉구했다.

분열된 영국인들을 아우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스코틀랜드는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독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도 영국에

서 독립해 하나의 아일랜드로 통합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찰스 3세는 왕실 가족 내 끊임없는 잡음도 다스려야 한다. 왕세자 시절 다이애나비와의 이혼 과정에 이미 왕실 이미지에 크게 먹칠을 한 찰스 3세는 차남 해리 왕자와의 갈등이나 동생 앤드루 왕자의 성 추문 의혹 등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군주제가 현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 21세기 영국 시민들에게 왕실이 시대착오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 재선 도전 공식화 바이든 지지율 6%P 하락 36% '고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뒤 초반 지지율 추면에서 전반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명을 지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47%, 민주당 성향 무당층은 1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후보 지명에 찬성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이외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8%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7%, 민주당 성향 무당층은 77%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 입무 수형 지지율도 36%를 기록,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는 직전 지난 2월 조사 당시 42%와 비교해 6%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해 초반 37%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굳히는 모습이다.

공화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누가 차기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는 결과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